

## C-1.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점막 획득을 위한 무세포성동종진피의 적용 증례

최승민, 엄흥식, 장범석

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### 연구 배경

임플란트 주위조직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적절한 폭의 각화 점막과 적절한 깊이의 구강전정이 필수적이다. 이를 위해 유리치은이식술(Free gingival graft)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.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은 추가적인 수술부위(donor site)가 필요하고, 공여조직이 제한적이며, 술 후 환자의 불편감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.

최근 전통적인 자가조직사용의 대안으로 인간의 진피로부터 얻어진 생체적합성 무세포성 결체조직(AlloDerm<sup>®</sup>)의 사용이 소개되었다. 이러한 무세포성동종진피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치근피개와 치조제증대를 달성하였다는 보고들이 있다.

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점막 획득을 위해 무세포성동종진피를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고 고찰하고자 한다.

### 연구방법 및 재료

전신적으로 건강한 세 명의 임플란트 환자를 대상(45세 여, 34세 여, 47세 남)으로 하였고 두 명은 최종 보철물이 장착된 상태에서, 나머지 한 명은 임플란트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에 각화점막 증대를 위해 무세포성동종진피를 사용한 추가적 수술을 시행 하였다.

### 연구결과

무세포성동종진피만을 사용하여 각화점막 확보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원하는 만큼의 각화점막을 얻을 수 없었다.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과 병행하여 시행한 부위에서는 주위로 충분한 각화점막을 얻을 수 있었다.

### 결론

인간의 진피로부터 얻어진 생체적합성 무세포성 결체조직(AlloDerm<sup>®</sup>)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치근피개와 치조제증대를 이루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, 이번 증례를 보았을 때 각화점막 확보를 위한 유리치은이식술(free gingival graft)의 대응으로서의 무세포성동종진피 사용은 그 예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.